

## 현세를 보는 바른 시각

신학박사 조 덕운

*[데살로니가후서 2:2-3]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먼저 코비드 환경 중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을 지키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코비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약 1 주 정도 고통을 받았으나 충분한 휴식과 효과적인 투약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회복하였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 치료를 위한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낼 메시지를 준비할 힘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로 인하여 고통을 받거나 사망하였음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가족들의 고통에 저의 마음도 매우 아픕니다. 이에 그간 현 세상에 대한 솔직한 견해의 피력을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그간 저의 이메일 미션에 동참해 온 여러분을 위하여 현세에 대하여 잘못된 견해 또는 ‘혹시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보는 견해를 전달함으로써 여러분의 건강과 종말에 대한 여러분의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 중 어떤 사람들이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다고 함을 듣고 주님의 날, 즉 종말의 때가 임하기 전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 (apostacy)”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으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적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시간적 순서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떨어져 나가는 일은 물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회의 부패와 신앙적 이탈을 의미하지만 보다 크게 인간 세상의 도덕적 타락과 국제 정치적 패도 현상의 표면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떨어져 나감 (배도)은 사실 19 세기부터 시작되어 소위 모더니즘이 신학 교육계에 침입되기 시작하여 기존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여 수천개의 수정을 포함한 소위 변질된 원본과 그에 바탕을 둔 번역본들이 수십개 출간되었고, 개신교의 교회와 교리에 분열과 분파들이 많이 생겼으며, 성경에 바탕을 둔 도덕적 기준들이 부정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운동들이 온 세상을 휩쓸고, 그 결과로 이 세상은 수차에 걸친 세계 전쟁과 공산주의의 잔혹함에 수천만명의 인명이 희생되었고, 아직도 수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안정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배도 현상이 일부 소수 국가들을 제외하고 온 세계에서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극좌파 정치 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글로벌리스트 (소위 카발)들이 엄청난 부를 배경으로 막대한 돈을 뿌려서 부정 선거를 뒷받침하여 극좌파 정치 세력이 정권을 탈취하는 일이 한국과 미국 및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의 패권을 미국으로부터 빼앗아 중국이 말 그대로 온 세계의 중심 최고 국가가 되게 하겠다는 시진핑의 야욕을 실현하는 한 방안으로 수년전부터 미국의 일부 부패한 의료 과학기술 세력들 및 의약계와 협동하여 그간 에이즈, 사스, 메르스, 이어서 코비드 균을 만들어 내어 전략적으로 유포시켜 온 세계를 혼란과 공포에 몰아 넣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으며,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코비드 예방을 목적으로 단 기간에 의도적으로 인체 내에 유해한 물질과 미세 기생충을 삽입하는 천인공노할 백신들을 개발하여 사람들을 살리기는 커녕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 강력한 백신들을 만들고, 더욱 무서운 세균과 바이러스를 개발하여 의도적으로 유포시킴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을 자기들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을 순서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통합하여 나중에 나타나게 될 적 그리스도의 단일 정권의 손아귀로 몰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미국의 CDC 가 발표한 미국의 사망자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하는 통계에 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https://www.theepochtimes.com/exclusive-why-are-non-covid-deaths-spiking-among-prime-age-americans\\_4233385.html?utm\\_source=ai&utm\\_medium=search](https://www.theepochtimes.com/exclusive-why-are-non-covid-deaths-spiking-among-prime-age-americans_4233385.html?utm_source=ai&utm_medium=search)) 그들은 발표하기를 0 세~17 세 그룹의 사망자 증가는 없었지만, 17 세~49 세 연령 집단에서 코비드와 무관한 사망자 수가 2020 년 및 2021 년 기간중에 “상당히” 증가했다고 말하여 이 사망자 증가의 원인을 코비드와 연관이 없는 마약 복용, 자살 등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사망 원인 통계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사망 보고를 하는 의료인이 사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보고하지 않고 겉치레로 보고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40~49 세의 사망자 증가율을 보면, 2019 년에 비하여 2021 년에는 연간 총 사망자 수가 무려 42 퍼센트나 증가했습니다. 동일한 연령 집단의 분기별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2019 년 4 분기에 27,500 명에서 2021 년 3 분기에는 44,000 으로 증가하여 무려 60 퍼센트의 총 사망자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2 년간 미국 사망자 수는 백신을 접종했던 모든 연령 그룹에서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백신이 사망율 증가의 직접적 원인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코비드로 인한 직접적 사망에 추가하여 백신 접종으로 인한 급격한 면역력 감소로 체내 기저 질환들의 급속한 확산 및 장기 기능의 악화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인 사망의 증가가 극심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코비드 사망자 중 백신 접종자의 비율이 무려 70 퍼센트이었다는 공식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탄을 섬기고 그의 세계 장악 기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카발 세력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백신을 통하여 인구를 대폭 감소하겠다는 그들의 사악한 계획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세상을 바로 보는 시각을 교인들에게 사심없이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호하게 카발 세력의 이러한 사악한 계획들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세워 교육시키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세태에 참 신앙을 지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결심을 굳게 하고 참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시력과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우리 모두를 자신의 백성으로 많이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아멘.